

캐릭터 선물상자...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들

판화 작가 정승원 개인전

6월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9년간 머문 독일 풍경 등 담아
“관람한 이들에 작은 선물 되길”



▶'양동시장'

“제 작품이 관람하는 이들에게 작은 ‘선물’처럼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승원 작가의 전시장에 들어서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운 유쾌한 스타일의 다양한 캐릭터 스티커다. 전시장에 걸린 판화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징물들로 벽면을 장식했다.

판화작가 정승원의 개인전 ‘FEST 축제’(6월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는 행복한 일상들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이라 신선하다. 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독일 유학 시절 판화스튜디오에서 실크스크린을 처음 접하고 매력에 빠져 판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독특한 색감이 인상적인 작품들의 소재는 작가가 직접 겪고 바라본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다. 그의 작품은 재미난 ‘캐릭터 선물상자’같다. 대관람차를 타고 즐거워하는 아이, 맥주 한잔 놓고 수다 삼매경에 빠진 남자들, 누드도 수영하는 아저씨,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이들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여기에 다채로운 ‘장소’도 모습을 드러낸다. 맥주 공장을 리노베이션한 술집, 즐거가던 유기농 뺑뺑, 흥겨운 브레멘의 축제 현장, 독일인들의 한가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는 호수풍경 등이다. 또 여행중 찾았던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과 FC축구장 등도 화면에 들어왔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난듯, 소소한 행복의 현장에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지난해 귀국한 정 작가는 ‘시장’을 꼭 그려보고 싶었다. 시장만큼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공간도 없기 때문이다. 독일과 유럽을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전시작과는 다른 색감의 작품 ‘양동시장’은 우리와 친숙해 더 흥미롭다. 흥어와 갈치가 나란히 놓여 있는 동문수산,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인 하나분식과 양동순대, 양파를 작두를 썰고 있는 아저씨, 엄마 따라 나온 꼬마 등 다양한 캐릭터는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정 작가는 재료 실험도 끊임없이 시도한다. 부풀어오르는 느낌을 강조하는 발포물감 등을 활용해

제작한 ‘산’ 시리즈는 독특한 색감과 질감이 눈에 띄며 야광물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 ‘크리스마스 마켓’은 깜짝 선물처럼 컴컴한 공간에 배치해 작은 즐거움을 준다. 또 작가가 직접 사용하는 실크스크린 판도 전시돼 있으며 똑같은 원판을 다른 색감으로 찍어낸 작품을 나란히 배치, 판화의 ‘재미와 장점’을 전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영화 감독 알프레도 히지콕처럼 뜨개모자와 검은 안경을 쓴 ‘작가’의 캐릭터가 작품마다 등장해 숨은 그림찾기 같은 재미도 준다.

정 작가의 캐릭터들은 최근에 출시된 보해양조의 소주 ‘천년예’에도 등장한다. 광주의 전일빌딩, 보성 녹차밭, 양림동, 전주 전통성당 등 호남 지역 명소들을 담아 제품 디자인을 진행했다.

만화, 애니, 조형물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발전시켜 작업세계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정 작가는 “소소한 재미, 잊고 지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함께 모이면 결국 우리 삶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전시 주제도 ‘FEST-축제’로 잡았다”고 말했다.

작가가 전시장에 상주하며 전시 작품 해석을 들려주니 꼭 참여해 볼 것.

정 작가는 독일 브레멘 국립 예술학교 통합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오는 10월에는 일본 삿포로 갤러리 레타라에서 열리는 ‘2x2 핫카이드 광주미술 교류전’에도 참여한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23-66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인 전현정 5·18 음반 ‘광주아리랑’ 발매

재즈·가요·전통 국악 등 7곡 수록

국악을 전공한 광주 출신의 전현정이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그리움을 그린 음반 ‘광주아리랑’을 발표했다. 이번 음반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지난 18일 정식 발매됐다.

타이틀곡인 ‘광주아리랑’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한 소설가 황석영씨의 아들 황호준씨가 작곡했다.

수록곡은 오케스트라, 재즈, 가요, 전통 국악 등 다양한 색깔로 광주를 재해석했다.

총 7곡이 수록됐으며 타이틀곡으로는 황호준 작곡가의 오케스트라 버전 ‘광주아리랑 I’과 재즈 버전이 담겼다. 또 재즈 아티스트 권오경 교수의 ‘광주아리랑 II’, ‘가자 우리’, 판소리 춘향가 대목의 사설을 편곡한 이경섭 작곡가의 ‘이리 오나라’,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린 안현정 교수의 ‘통일아리랑’ 등을 담았다.

전 씨는 가야금병창을 전공했으며 이화여대 한 국음악과 박사를 수료하고 여수시립국악단 상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아리랑을 기획한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 예술원 고정균 이사장은 “아리랑은 지역별로 특색있게 만들어지고 재창조되고 있지만, 광주에는 유독 아리랑이 없다”며 “광주 출신의 가수와 작곡가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그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삶과 그리움을 아리랑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서양화가 조영자 개인전 ‘마음, 그리다’

31일까지 LH 휴광갤러리

서양화가 조영자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LH 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마음,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일상의 풍경과 상상이 어우러진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노란색 이파리가 인상적인 큰 나무와 그 위를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 나무 그늘아래 웅기둥기 모여 있는 집들 등 평화로운 풍경들이 눈에 띈다. 또 열핏 여인의 긴 머리카락처럼도 보이는 나무의 줄기에 매달린 이파리들도 화폭을 장식하고 있다. 색채 심리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작품에서 도드라지는 건 역시 색감이다.

호남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조 작가는 ‘스페인 불 여행전’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현재 광주사생회 회원, 한국미술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3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음, 그리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작가에게 직접 미디어아트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작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3회차~6회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된 1, 2회차 아카데미는 김혜경 작가 ‘전통미술과 뉴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감성표현’과 다이엘팀(안유자, 변수진) ‘LED 트레팔지 등 만들기’로 큰 호응을 얻었다.

3, 4회차 아카데미는 신장우, 풀바주카 작가와 함께하는 ‘움직이는 종이 기계 오토마타’ 체험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된다.

5, 6회차는 문창환, 최하람 작가의 ‘빛과 소리로 떠나는 세계여행’으로 내달 16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LED·세계지도카드 등 어린이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시각자료와 다양한 소리를 생성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체험교육이다.

아카데미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아트 아카데미에서 50분씩 진행된다. 참가비 무료로, 각 회당 선착순(10명) 전화 접수하면 된다. 문의 및 접수 062-670-749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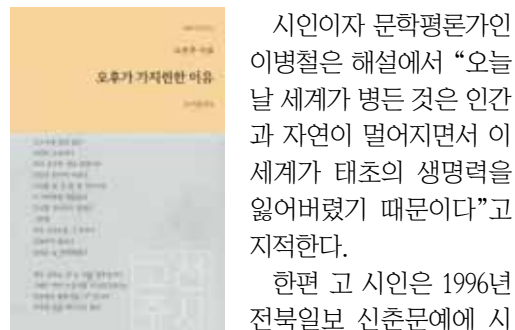
고선주 시인 ‘오후가 가지런한 이유’ 발간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슴에 뭉친 것들 늘어간다/ 도 시간이 목에 걸렸다/ 뭉친 것들은 아무리 씹어도/ 찜체 으개어지지 않는다// (중략) 치통처럼 아파오는 일상/ 더는 못 보겠다/ 물렁물렁해진 오후를 기다린다”(‘오후의 한때’ 중에서)

고선주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오후가 가지런한 이유’(도서출판 b)를 펴냈다. 두 번째 시집 이후 6년 만에 펴낸 작품집에서 인간과 자연, 생명과 우주 사이에 생긴 간극을 응시한다. 평화스러운 오후가 느껴지는 제목의 시집이지

만, 실상은 인공적인 사물에 둘러싸여 전혀 평화스럽지 못한, 망가지고 아픈 인간의 삶이 시편마다 배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집은 이 세계의 축소판이라 해도 무방하다.

시인은 무등산에 오르며 ‘안아픈세상연구소’라는 안내판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시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루가 지난다는 것은” “붕대 붙인 날이 더 늘어간다는 것”이라면서 세상 모든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병철은 해설에서 “오늘날 세계가 병든 것은 인간과 자연이 멀어지면서 이 세계가 태초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한편 고 시인은 199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광남일보 문화부장을 맡고 있다. 시집으로 ‘꽃과 악수하는 밤’, ‘밤알의 힘’ 등이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가의 여행대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넒을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총-수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겨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